

# 우리는 김대건 신부 순교로 피어난 꽃들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성 김대건 신부 전시관 축복식 및 본당의 날 행사 가져



워싱턴 한인 천주 교회 로비에 위치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관 축복식에서 마리오 도슨빌 주교가 김대건 신부님 유해를 동상에 모시고 있다. 이 동상은 한국 의정부교구 영동국 루카 신부 작품이다(위). 이에 한 주 앞서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에서 봉헌된 본당 공동체의 날 기념 야외 미사 모습(아래).

자료 협조로 꾸며졌으며, 동상은 한국 의정부교구 영동국 루카 신부의 작품이 설치되었다. 또한, 김대건 신부 성화 아래에는 본당 신자의 사진들을 이용하여 만든 ‘피어라, 순교자의 꽃!’ (Florete, Flores Martyru!, Blossom, Flowers of Martyrs!)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로 태어난 꽃들입니다.’라고 기록했다.

기념관에는 김대건 신부 약력과 활동도, 한국 천주교회의 특별한 시작, 4대 박해 시기, 한국의 성인과 복자들, 그리고 우리 본당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했다.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대회년 전대사를 받는 지정 성당 중 한 곳으로 김대건 신부 성인 유해가 안치된 김대건 신부 상에 참배하는 것이 전대사 조건 중 하나이다.

이날 본당에서 특별 제작한 200주년 기념 장바구니와 국내 화장품 회사인 미사로부터 기부받은 손살균 소독제를 미사에 참석할 전신자에게 나누어 주었고, 삼천 개의 손살균 소독제는 주일학교 및 한국 학교 학생들과 본당의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ABLE C&C US, Inc에서 기증했다.

한편, 이에 앞서 9월 19일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본당 공동체의 날 행사로 김대건 신부 동상 옆 야외 잔디밭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이 미사는 우리 교구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한가위 미사로 함께 봉헌되었다.

약 500여 명의 본당 신자들이 참석하여 10시 30분부터 미사를 봉헌한 후에 코로나-19 방역에 최대한 유의하여 각 구역과 예이지 그룹에서 스스로 준비한 도시락 및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공동체별로 했다. 이후에는 야외 행사로 빙고 게임과 O-X 퀴즈게임을 진행해 행사에 참여한 신자들이 선물로 증정했고, 공동체의 날 기념품으로 본당에서 재배한 대추를 행사에 참석한 모든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본당의 날 그림 그리기 및 백일장 대회를 동시에 진행해 약 60여 명의 신자가 참가했다. 유아와 초등부의 주제는 ‘우리 성당’, 중고등/청년/성인부에서는 ‘천주교 순교자 현양’이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와 백일장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주제 표현을 위하여 자기 생각을 그림과 글로 표현했고, 이날 심사에는 전통진 스테파노 보좌신부, 사목회장단, 한국학교의 교장, 자모회장, 주일학교 디렉터, 미술 전공한 두 명의 전문가 등이 맡았다. 독창성 및 창의성, 색채와 주제의 표현력, 완성도에 대한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10월 3일 수여한다.

【메릴랜드】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주임 이준성 요셉 신부)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회년 기념미사 및 김대건 신부 전시관 축복식을 지난 26일 가졌다. 본당의 날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미사는 워싱턴대교구의 마리오 도슨빌(Mario Dorsonville) 주교가 집전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간단한 화동의 꽃다발 증정 이후에 특별한 환영 행사 없이 본당 신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순교자 대축일’ 미사로 봉헌되었다.

교중 미사 후 성전 로비에 위치한 기념관 개관 및 축복식이 있었는데, 새로 준비된 김대건 신부님 동상에 김대건 신부님 유해를 모시고 기념관을 축성하는 예식을 진행했다. 김대건 신부 전 시관은 절두산 순교성지 한국천주교순교자 박물관, 가톨릭평화방송신문, 가톨릭 출판사의

##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길

### 성 이윤일 한인 천주교회 성서 필사 시상식 및 축복식



성 이윤일 한인 천주교회 본당 설립 40주년 행사 일환으로 실시한 성서 필사를 마무리한 신자들이 임종욱 신부와 함께하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사와 성서 공부 등 대면 모임은 줄었지만 성서 읽기와 필사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개인 영성 훈련 등을 통해 하느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

샬럿 성 이윤일 한인 천주교회(주임 임종욱 바오로 신부)는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아 여러행사를 시도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몇몇 행사는 취소되었다. 그 가운데 본당 신자들에게 묵주기도 40만단과 함께 성서 필사를 권고하였고, 묵주기도는 5월에 전신자들이 40만 단 기도를 마쳤으며, 성서 필사는 8월까지 마무리하고 축복식과 시상식을 가졌다. 총 18명이 참가해 그중 5명이 성서 필사를 완료했다. 모인 신자들이 함께 쓴 성서는 약 한 달간 본당 친교실에 전시할 예정이며, 이번 전시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하느님께 더 가까워지고 신앙은 깊어지는 기회가 되었다.

성서 필사에 참가한 신자들은 성서를 옮겨 적으면서 느낀 감동과 은총, 변화된 모습, 신앙체험 등을 공유하며 축복을 받았으며 임종욱 바오로 신부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 가장 가까운 원초적인 길은 성서를 가까이하는 길이며 성서를 직접 써 보으로써 느끼는 체험은 풍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서 쓰기와 주 1회 가족 간에 성서 읽기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성 이윤일 한인 천주교회 신자들은 올해 4월부터 대구대교구가 실시한 ‘주교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서독후 40주간’도 함께 병행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다.

기사/사진 제공: 권영재 사도요한

### cpbc 미주가톨릭평화신문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Inc.  
145-27 33rd Avenue, Flushing, NY 11354  
Home page: peacetimesweekly.org  
E-mail: peacetimes93@hotmail.com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USPS 10804) is published weekly(except Lunar New Year, Summer Vacation, Korean Thanksgiving) for \$150 per year by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Inc. Periodical postage paid at Flushing, NY.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The Catholic Peace Times Weekly, Inc. 145-27 33rd Ave., Flushing, NY 11354

구독료: 1년 미국 \$150.00 (USD) 캐나다 \$300.00 (CAD)

Publisher: Rev. Je Hyoung Cho

발행인: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

Tel. (718) 762-6500, 5107  
(800) 219-1137  
Fax. (718) 762-5108

미주가톨릭평화신문 (USPS 10804)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톨릭 신문이며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주가톨릭평화신문은 매주일 발간하는 주간지이며 설날, 여름 휴가, 추석 3회를 휴간합니다.

**SEOUL 서울 바베큐 앤 스시**  
Seoul BBQ & Sushi Korean Cuisine  
New Britain CT

### “2014 최고의 한국 음식점” Hartford Courant 선정

- \*한식, 일식 런치스페셜
- \*한식, 일식 전채요리, 탕과 찌개
- \*스시 앤 사시미 스페셜 및 단품, 일식 정식, 특선 롤
- \*한식 바베큐, 한식특선, 생선구이와 찌개
- \*비빔밥, 볶음밥, 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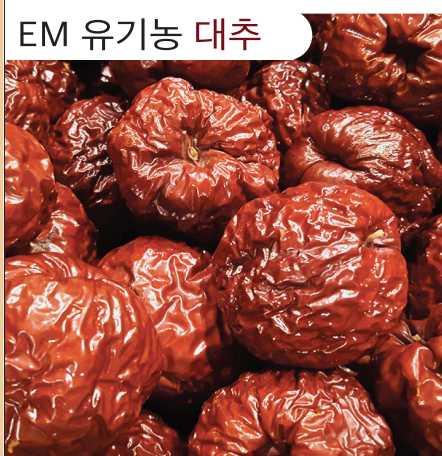
ADVOCATE  
★ BEST ★  
OF  
HARTFORD  
READERS' POLL  
2014

**OPEN** Hours of Operation  
Lunch: M-F 11am-3pm  
Dinner: M-Sun 11am-10pm  
593 Hartford Rd. New Britain, CT 06053  
Email: seoulbbqsushi@gmail.com  
Phone: (860) 223-9114

### 마리아 대추 꽃감 농장 (213)604-6744 (213)604-6717

마른 대추 · 찐 대추 · 스낵 대추 · 꽃감 · 대추즙 · 양파즙 · 감식초 · 매일 엑기스

### 면역력 향상과 혈관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E.M 유기농 대추와 자연건조 꽃감



10만개 매진 종료!  
햇감감 선예약 받습니다.



강 마리아와 김 요셉

Mary's Farm: 15565 Meridian Rd. Lucerne Valley, CA 92356  
E-mail: kyungpkim@gmail.com www.marysjububefarm.com